

익명검사, 실보다 득이 많다.

신영오 / 강원대 의대 교수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에는 많은 경우 허와 실이 있다. 이중의 하나가 비교적 근래에 도입된 익명 검사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익명검사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염려하였다. 철저히 감시해야 할 감염자들을

만에 일이라도 감염자로 확인되는 것을 극히 우려하게 된다. 제도가 엄격할수록 감염자는 꼭꼭 숨으려고 한다. 이들은 에이즈 자체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친지로부터의 수치와 소외, 직장에서의 해고를 두려워하고 미혼자들은 무엇보다도 결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검사를 익명으로 받을 수 있을 때,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쉽게 검사에 응함으로써 감염되었을 경우 보다 이른 시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익명검사에도 문제점이 있다. 실명을 밝히지 않은 경우 양성자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하게 되어 본인 부담이 증가되

못 찾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항의가 많았다.

익명검사의 가장 큰 이점은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검사에 응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있다. 성적으로 위험한 집단에 속한 사람이라도 실명으로 검사를 받을 경우 신분의 탄로가 두려워 검사에 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일수록 실명으로 에이즈검사를 받아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또한 실제로는 HIV의 감염 가능성이 극히 낮은 사람이 에이즈를 이해하지 못하여 감염되었다고 믿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의 고민을 익명검사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명 검사를 엄격하게 요구할 때 검사를 받는 사람은

며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양성자가 반복적으로 검사를 의뢰할 때 보건 통계에 큰 혼란을 가져온다. 반복적으로 검사를 의뢰할 때 양성자는 지속적으로 발견되지만 검사의뢰 자체가 필요 없는 낭비가 된다.

이 모든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익명검사는 전체적으로 득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익명검사제도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하여서는 이 제도 자체를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익명검사를 한 다음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사자가 지진하여 신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A**